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

이 지 연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이 매개하는지를 이론적 모형 검증에 의해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의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모형이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77명(남자 178명, 여자 199명)을 표집하여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폭력에 대한 태도, 분노 조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정한다면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을 거쳐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의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 모형에 포함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의 완전매개 모형이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간 폭력 목격, 폭력에 대한 태도, 분노 조절, 데이트 폭력

[†] 교신저자 : 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kjoh@yonsei.ac.kr

한국 사회의 부부폭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부부폭력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률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조미숙(1999)의 조사에 의하면, 한 달에 1~2회 이상의 심각한 부부폭력을 경험하는 가정은 18.6%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를 전국 가정 수에 환산하여 추정하면 약 250만 가정에서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동시에 상당수의 아동 자녀들이 부모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지만, Gelles와 Straus(1979)는 폭력을 의도를 가지거나 잠재된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부부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나 정서적 손상을 가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서적·신체적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 간의 정서적·신체적 폭력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폭력 행동 후에 부모의 정서적·신체적 손상을 보게 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제한하고자 한다.

부부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아동, 청소년 자녀들의 부적응이나 폭력적 성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이 단기적으로 자녀의 정서나 행동,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해 밝히고 있다(강경아, 1998; 김연옥, 박인

아, 2000; 김은희, 김정옥, 2001;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해숙, 2004). 그러나 단기적인 피해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가정 내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정혜정, 2003).

Kenneth, John과 Gregory(1990)는 폭력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의 개념으로 가정폭력 노출 경험의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이는 아동기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성장 후 배우자, 동료, 형제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장 후 친밀한 상대에 대한 폭력과 연관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Kaufman & Zigler, 1987),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경우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혼전 단계에 있는 남녀간의 폭력인 데이트 폭력은 최근 폭력 전이의 주제 가운데 가장 새로운 영역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데이트 폭력을 통해 아동기의 학대가 어떻게 성인에서의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eg., Follette & Alexander, 1992, Tontodonato & Crew, 1992). 만성적으로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의 영향력은 아동기보다는 데이트 관계에서 더 쉽게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Carlson, 1990). 특히 데이트 관계 동안 발달된 행동패턴과 기대는 결혼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Cate, Hel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Makepeace, 1986; Roscoe & Benaske, 1985),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의 심각성은 매우 크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Ronfeldt, Kimberling과 Arias(1998)는 원가족에서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대학생들은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에게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의 정도 및 빈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Keffe(1997)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모간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김예정과 김득성(1999)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자 대학생들이 데이트 상황에서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 쉽다고 보고하였으며, 정혜정(2003)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간 폭력 노출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혀내는데 실패하였다. McCloskey와 Lichter(2003)은 부모간 폭력 목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Foo와 Margolin(1995)이나 Follette와 Alexander(1992)의 연구에서도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O'Keffe(1998)는 이 같이 불일치하는 결과들은 부모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학업 성취도, 자존감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알콜 중독이나 사회적 고립, 우울과 같은 정신 질환 등이 다음 세대로 폭력이 전이되는 정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Avakame, 1998). 하지만 이 같은 변인들이 원가족에서의 폭력 노출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므로,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부모간 폭력 노출 경험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입증되어 온 관점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사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traus, 1991; O'Leary & Cascardi, 1998; Sanders, Halford, & Behrens, 1999). 사회학습이론은 관찰학습과 모델링의 개념을 통해 공격성이 관찰과 모델을 경험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Bandura, 1973). 이는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공격성을 증가시켜 데이트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갈등해결에 대해 간접 학습을 하게 되어 성인이 된 후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폭력이라는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사회학습이론적 변인의 매개 효과를 살피는 경험적 연구는 폭력사용기대, 폭력허용도, 갈등대처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특히 데이트 폭력 피해 행동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변인은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이다(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2001; Arias & Johnson, 1989; Foshee, Bauman, & Linder, 1999). 아동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고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데, 폭력에 있어서도 부모를 모델로 삼아 부모의 폭력 행동과 폭력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Foshee et al., 1999; Marcus, Lindahl, & Malik, 2001). 아동은 폭력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폭력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

다. 때문에 성장 후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파트너에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더 허용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Marcus et al., 2001, 정혜정, 2003). 동시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데이트 파트너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Foshee, et al., 1999; Riggs & O'Leary, 1996; 서경현 외, 2001). 이와 같이 폭력에 대한 태도가 폭력 목격 경험 및 데이트 폭력과 각각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꾸준히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다음 세대의 폭력 행동으로 전이되는데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태도가 폭력 목격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가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분노, 우울 등 내적 긴장에 의해 폭력을 저지르는 비합리적 공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의 전이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Dutton, 1999).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이후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하는 추가 기제를 밝혀내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며, 분노 등의 정서를 조

절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Gross & Munoz, 1995).

초기 아동기에 겪게 되는 정서 경험은 그 개인이 성장한 이후의 정서 반응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에 토대를 형성한다(Cicchetti, Toth, & Bush, 1988; Davies, Harold, Goeke-Morey, & Cummings, 2002). 이 시기에 부모가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이라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관찰한 아동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분노의 정서를 느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학습하게 된다(Van der Kolk, Perry, & Herman, 1991). 이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대적인 단서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이로 인해 상당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되면서 정서적 고통이나 분노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Jakupcak, Lisak, & Roemer, 2002; Kench & Irwin, 2000). 실제로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폭력 행동의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된다는 것은 꾸준히 입증되고 있으며(Bushman, Baumeister, & Phillips, 2001; Wolfe, Wekerle, & Reitzel-Jaffe, 1998),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 분노 조절의 영향력이 보고되기 시작했다(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 1999; 서경현, 2002).

이같이 분노 조절과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데이트 폭력 간의 관련성이 각각 증명되기 시작하였으나, 분노 조절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함으로써, 분노 조절이 부모간 폭력 목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의 부정적 영향력이 성인기 데이트 관계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임상적 개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사대상자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며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중에서 두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S대학과 Y대학의 심리학과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37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는 178명(47%), 여자는 199명(5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51($SD=2.07$)세였다.

측정 도구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백경임(1998)이 CTS2(Conflict Tactics Scale-version 2)를 국내에서 자녀용으로 수정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폭력 특성상 아동이 관찰할 수 없는 성적 폭력을 제

외하고, 협상(6문항), 심리적 폭력(8문항), 신체적 폭력(12문항), 심각한 신체적 폭력인 상해(6문항)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과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을 각각 질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을 많이 목격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협상 .93, 심리적 폭력 .90, 신체적 폭력 .94, 상해 .80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CTS-2(Conflict Tactics Scale-version 2)는 국내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배우자의 폭력 행위 빈도와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Straus, Hamby, McCoy와 Sugarman(1996)가 CTS-1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안하여 수정, 개발한 것을 손정영(1997)이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부부싸움'을 '나와의 다툼'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갈등 상황과 관계없는 성적 폭력을 제외하고, 협상(6문항), 심리적 폭력(8문항), 신체적 폭력(12문항), 심각한 신체적 폭력인 상해(6문항)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폭력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나 무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적 폭행에는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무기를 사용하여 구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파트너에게 폭력을 많이 가해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협상 .80, 심리적 폭력 .69, 신체적 폭력 .72, 상해 .04로 나타났다. 상해의 신뢰도가 부적합하여 상해를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신체적 폭력에 포함시킨 결과 신체적 폭력의 신

되도는 .77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태도

Foo & Margolin(1995)의 ADI(The Attitudes About Dating Index)를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서경현 등(2001)이 ADI를 번안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추가한 4가지 상황을 함께 사용하였다. 총 16가지 데이트 갈등 상황은 데이트 파트너에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인 가해 폭력(14문항)과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는 상황인 방어 폭력(3문항)으로 구분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가해 폭력 .92, 방어 폭력 .79로 나타났다.

분노 조절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적인 상태 분노를 제외한 특질 분노(10문항)와 세 가지 분노 표현 방식인 분노 통제(8문항), 분노 표출(8문항), 분노 억제(8문항)의 하위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특질 분노 .85, 분노 통제 .82, 분노 표출 .75, 분노 억제 .78이었다.

연구 절차

분노 표현 척도(STAXI),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질문지(CTS-2), 부모간 폭력목적 질문지(자녀용 CTS-2), 폭력정당화 척도(The Attitudes

About Dating Index)순으로 이루어진 총 146문항의 설문지를 Y대학에서는 사전에 실험을 신청한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고, S대학에서는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참가에 동의한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분석 방법

SPSS 12.0을 사용하여 전체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을 위해 Amos 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 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 비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 or TLI), 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적합도 지수들은 .90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본다(홍세희, 2000).

결 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트 신체 폭력 가해($t=-4.459, p<.001$)와 폭력에 대한 태도($t=-5.433, p<.001$)에 있어서 여학생 집단의 점수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해 폭력($t=-4.958, p<.001$)과 방어 폭력($t=-6.171, p<.001$) 모두 여학생이 더 높은 것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변인	전체(N=377)	남자 (n=178)	여자(n=199)	t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41(.38)	.40(.35)	.43(.40)	-.807
아버지 폭력	.43(.43)	.42(.41)	.44(.44)	-.595
어머니 폭력	.37(.36)	.34(.32)	.39(.39)	-1.157
데이트 폭력 가해	.39(.33)	.34(.29)	.42(.36)	-2.423
신체 폭력	.35(.60)	.21(.41)	.47(.71)	-4.459***
심리 폭력	.54(.48)	.51(.47)	.57(.50)	-1.174
폭력에 대한 태도	2.44(1.27)	2.08(1.03)	2.76(1.37)	-5.433***
가해 폭력	2.26(1.23)	1.51(3.77)	2.01(1.16)	-4.958***
방어 폭력	3.20(1.78)	1.66(1.13)	2.66(1.96)	-6.171***
분노 조절				
특성 분노	2.09(.51)	2.08(.52)	2.10(.50)	-.441
분노 통제	2.67(.52)	2.75(.54)	2.60(.48)	2.830**
분노 표출	1.83(.45)	1.83(.45)	1.83(.44)	.213
분노 억제	2.16(.55)	2.12(.54)	2.20(.56)	-1.26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다. 분노 통제($t=2.830, p < .01$)는 남학생 집단의 점수가 여학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각각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트 폭력($r=.192, p < .01$), 폭력에 대한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부모간 폭력 목격							
2. 데이트폭력	.192**						
3. 폭력에 대한 태도	.203**	.252**					
분노 조절							
4. 특성 분노	.169**	.219**	.203**				
5. 분노 통제	-.073	-.226**	-.051	-.416**			
6. 분노 표출	.159**	.259**	.129*	.613**	-.446**		
7. 분노 억제	.109*	.065	.131*	.357**	-.080	.348**	

주. * $p < .05$, ** $p < .01$

태도($r=.203, p<.01$), 특성 분노($r=.169, p<.01$), 분노 표출($r=.159, p<.01$), 분노 억제($r=.109,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데이트 폭력은 폭력에 대한 태도($r=.252, p<.01$), 특성 분노($r=.219, p<.01$), 분노 표출($r=.259,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 통제($r=-.226, p<.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및 역기능적인 분노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및 역기능적인 분노 조절은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과도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 억제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을 매개 변인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이론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 이론 변인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들이 적절하게 이론 변인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고자 측정

모형을 먼저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검증 결과, 측정된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였다, $\chi^2(df=29, N=377)=62.664, p=.000$; TLI=.992; CFI=.996; NFI=.992; RMSEA=.056.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이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연구자가 설정한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대안 모형으로서 부모간 폭력 목격에서 데이트 폭력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 모형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정한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31, N=377)=72.043, p=.000$; TLI=.991; CFI=.995; NFI=.991; RMSEA=.059.

또한 대안모형으로서 부모간 폭력 목격에서 데이트 폭력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는 적절하였다, $\chi^2(df=30, N=377)=70.114,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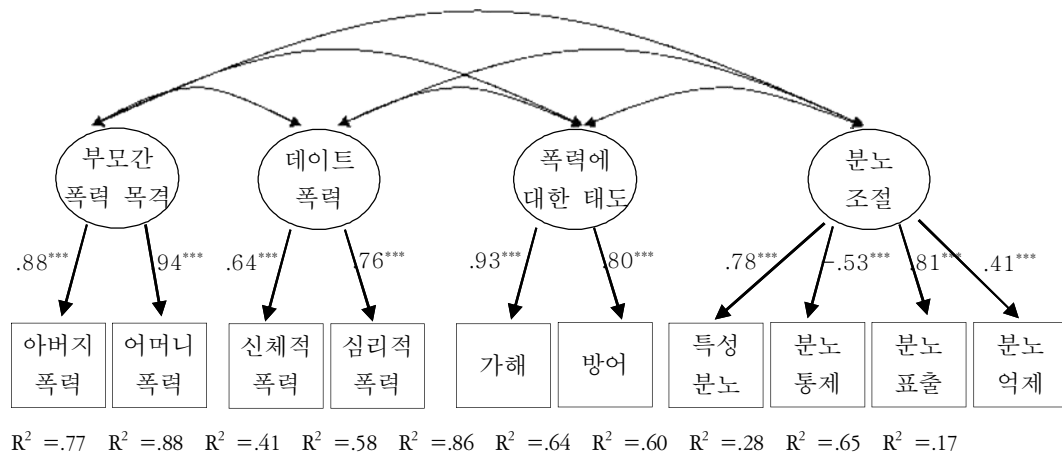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모형(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001$)

표 3. 측정 모형의 적합도

χ^2	df	p	TLI	CFI	NFI	RMSEA
62.664	29	.000	.992	.996	.992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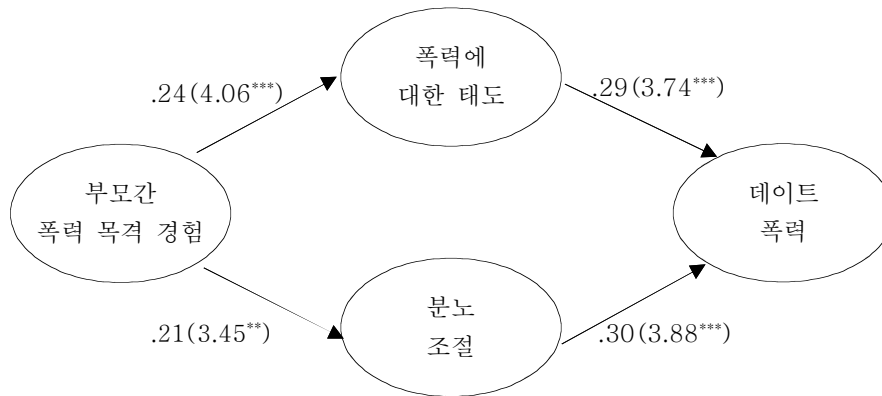


그림 3.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조절의 완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괄호 안은 t 검증치. *** $p < .001$)

.000; TLI=.991; CFI=.995; NFI= .991; RMSEA=.060. 그러나 가정된 대안 모형에 포함된 부모간 폭력 목격의 데이트 폭력으로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간 폭력 목

격 경험은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에 의하여 데이트 폭력으로 간접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에 대안모형에 관련된 경로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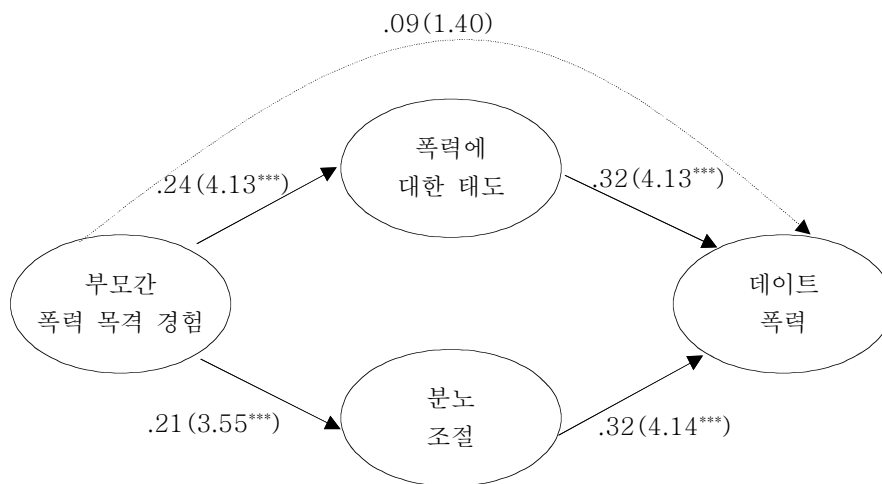


그림 4. 대안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괄호 안은 t 검증치. ** $p < .01$ *** $p < .001$)

표 4. 완전매개 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적합도 비교

	χ^2	df	p	TLI	CFI	NFI	RMSEA
완전매개모형	72.043	31	.000	.991	.995	.991	.059
대안모형	70.114	30	.000	.991	.995	.991	.060

연구자가 설정한 완전매개 모형과 대안모형으로서 부모간 폭력 목격에서 데이트 폭력으로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RMSEA에서 완전매개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의 카이 지수 값의 증가분이 유의하지 않았다($\chi^2_{diff(1)} = 1.929, p > .05$). 또한 대안모형에 포함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의 데이트 폭력으로서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부분매개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모형보다 완전매개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간의 적합도 비교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가정한 완전매개 모형이 부모간 폭력 목격에서 데이트 폭력으로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 모형보다 좋은 모형이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을 함께 고려한 모형보다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형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폭력의 전승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들에 있어서 남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데이트 신체 폭력 가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더 폭력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데이트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만큼 공격적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서경현, 2002; 서경현 외, 2001; 정혜정, 2003; Stets, 1992; Sugarman & Hotaling, 1989; Molitor & Tolman, 199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허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사랑의 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도록 사회화된 여성들(Chodorow, 1978)이 이성간의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위로 해석하기보다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Foo와 Margolin(1995)은 남성의 폭력은 굴욕감과 관련이 많은 것에 비해, 여성은 폭력을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사용을 자기 신체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며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대인관계를 중시하도록 사회화된 여성들이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해 더 솔직하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tets & Pirog-Good, 1987).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폭력에 대한 태도, 분노 조절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조절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로써 부모간 폭력 목격이 당시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부모간 폭력 목격 및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폭력에 대한 태도와 상관을 나타낸 선행 연구(e.g., Marcus et al., 2001; 유선영, 2000)와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 폭력과 관련을 보인 이전의 연구들(e.g., Arias & Johnson, 1989; 서경현,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역기능적 분노 조절을 의미하는 높은 점수의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은 부모간 폭력 목격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 조절의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Wolfe et al., 1998)와 일치한다. 이는 데이트 폭력과 특성 분노 및 분노 표출과의 관련을 밝힌 Follingstad 등(1999)이나 서경현(2002)의 연구와도 그 결과가 같다. 요약하자면, 아동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높은 수준의 역기능적 분노 조절을 보였다. 또한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역기능적인 분노 조절은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과도 관련을 나타냈다.

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이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에 대한 태도가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은 Kinsfogel & Grych(2004)이나 정혜정(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가치 또는 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데이트 파트너에 대한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노 조절이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Kinsfogel & Grych(2004)가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대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 결과 아동기 부모간 폭력 노출을 경험한 사람

들은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및 분노 억제력을 보였으며,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및 낮은 수준의 분노 통제는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즉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를 가지게 되고, 분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외부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분노 표출 수준이 높거나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압하는 분노 억제 수준이 높아진다. 그리고 특성 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를 외부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준이 높을 수록 데이트 갈등 상황에서 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간 폭력 목격이 단기간의 영향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된 대학생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로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데이트 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 두 요인간의 관계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가 폭력 전승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를 축적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을 완전하게 매개하여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최근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이 어떻게 둘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지를 이해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폭력사용기대, 폭력허용도, 갈등 대처행동 등 전통적인 사회학습이론적 변인을 단편적으로 연구한데 비해(Foshee et al, 1999; Marcus et al., 2001; 유선영, 2000), 본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기존에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는 분노 조절을 상정함으로써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이후 성인기의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모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보다 교육적, 치료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 매체나 지역사회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이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이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교제나 혼전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로그램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점검이나 분노 조절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 가해자 및 잠재적 위험 집단이 데이

트 폭력 가해 행동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성장할 때 목격한 부모간의 폭력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경험이 현재 폭력에 대한 자신의 허용적인 태도에 미친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수정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분노를 잘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갈등이 발생할 때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이 건강한 이성교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단기 횡단 연구이므로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으나, 반대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 조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종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의 역동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측정 방법에 있어서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므로, 이로 인한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나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의 경우 극히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고하기 꺼려질 수 있으며, 아동기 부모의 갈등 상황이나 데이트 상황을 회상해서 응답하므로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평가 방법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평정이나 행동적 관

찰을 함께 사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트 폭력 행동을 측정할 때 데이트 상대방의 평정을 추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개 변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이었지만,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매개 변인이나 조절 변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또래 친구들의 영향(Kinsfogel & Grych, 200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최지현, 2005), 갈등대처행동(정혜정, 2003) 외에도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에 매개 또는 중재 역할을 하는 다른 변인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모간 폭력 목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이뤄진다면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아 (1998).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의 부적응.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연옥, 박인아 (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은희, 김정옥 (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총*

- 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29, 135-150.
- 백경임 (1998). CTS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대한 가정학회지*, 36(2), 77-89.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15.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손정영 (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 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남편의 갈등 대처 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87.
-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해숙 (2004). 가정 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11-636.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혜정 (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73-91.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 4, 295-326.
- 최지현 (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 Avakame (199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against wiv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0(3), 193-202.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NJ: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 Bushman, B. J., Baumeister, R. F., & Phillips, C. M. (2001). Do people aggress to improve their mood?: Catharsis beliefs, affect regulation opportunity, and aggress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7-32.
- Cate, R. M., Helton, J. M.,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4), 285-299.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icchetti, D., Toth, S., & Bush, M. (1988).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incompetence in childhood: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1, pp. 1-77). New York:

- Plenum.
- Davies, P. T., Harold, G. T., Goeke-Morey, M., & Cummings, E. M.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 27-40.
-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gins of intimate rag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 431-447.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Victims*, 14, 365-380.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3.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 Gross, J. J., & Munoz, R. F. (1995). Emotional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 151-164.
-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 Christopher,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 Jakupcak, M., Lisak, D., & Roemer, L. (2002). The role of masculine ideology and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in men's perpetration of aggression and violence in relationships.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3, 97-107.
- Kaufman, J., & Zigler, E.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320-1322.
- Kench, S., & Irwin, H. J. (2000). Alexithymia and childhood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737-745.
- Kenneth, A. D., John, E. B., & Gregory, S. P.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Kinsfogel, K., & Grych, J. (2004).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 dating relationships: Integrating cognitive, emotional,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505-515.
- McCloskey, L. A., & Lichter, E. L.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t aggression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390-412.
- Makepeace, J. M. (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s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 Relations*, 35, 383-388.
- Marcus, N. E., Lindahl, K. M., & Malik, N. M. (2001).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social cognitions, and child aggression: A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2), 315-333.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O'Leary, K. D., & Cascardi, M. (1998).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A developmental analysis. In T. N. Bradbury (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 343-37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lak, S. D., Cicchetti, D., Hornung, D., & Reed, A. (2000). Recognizing emotion in faces: Developmental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79-688.
- Riggs, D. S., & O'Leary, K.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su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onfeldt, H. M., Kimb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70-78.
- Roscoe, B., & Benaske, N. (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in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34, 419-424.
- Sanders, M. R., Halford, W. K., & Behrens, B. C. (1999). Parental divorce and premarital couple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60-74.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Inc.
- Stets, J., & Pirog-Good, M. M.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e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65-177.
- Straus, M. A. (1991). Discipline and deviance: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and violence and other crime in adulthood. *Social Problems*, 38, 133-154.
- Straus, M. A., Hamby, S. L., McCoy, S. B.,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kers. In Stets, J. E., & Pirog-Good M. 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Victimization*,

- 7(1), 3-14.
- Van der Kolk, B. A., Perry, J. C., & Herman, J. L. (1991). Childhood origins of self-destruct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665-1671.
- Wolfe, D. A., Wekerle, C., & Reitzel-Jaffe, D.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abusive relationship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you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61-85.
- 1 차원고접수 : 2007. 8. 19.
심사통과접수 : 2007. 9. 23.
최종원고접수 : 2007. 11. 03.

The Effect of Witnessing Marital Violence in Childhood on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ee-Yeon Lee

Kyo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and anger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xperience of witnessing their parents' mari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377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attitude toward dating violence, anger regulation, and dating viole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tudents exposed to greater parental violence were more likely to view violence as justifiable in a dating relationship and had more difficulty with anger management, which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toward their own dating partners. (2) The results further revealed that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and anger regu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itnessing mari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attitude toward dating violence, anger regulation, dating violence